

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적인 자멸행위

남조선의 윤석열패당이 외세와의 《공조》놀음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적극 편승해나서는가 하면 《관계개선》과 《한미일3각동맹》구축의 미명하에 일본과의 범죄적인 군사적결탁에 달라붙고있다. 지어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미대화》니,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니 하며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는 사대매국적, 반통일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패당이 권력을 쥐자마자 이전 집권세력보다 더욱 극성스레 매달리는 외세와의 《공조》는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것이 혈육이고 한피줄을 이어온 동족이다. 이런 동족을, 더우기 통일되어 함께 살아야 할 상대를

해치기 위하여 저 혼자 대결하는것도 모자라 외세까지 끌어들이 련합하여 암살공세에 매달리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매국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침략의 칼을 갈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외부의 침략세력도 문제이지만 민족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동족을 해치려고 별의별 흉악한짓을 다하는 매국노들도 겨레가 용서치 말아야 할 무리인 것이다.

이런 범죄적인 외세와의 《공조》가 초래할 후과는 파국적이다.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관계를 버랑뜰으로 돌아가는 반통일 《공조》이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실현을 저해하는 근원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열이라는 가슴아픈 비극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미국이 남조선의 천미세력을

부추쳐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이미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일떠섰을것이다. 외세야말로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악랄한 책방군이다.

이런 침략적인 외세에 의존하려는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업살정책을 시종일관 추구하는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암살하려고 날뛰고있으니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북남관계가 더욱더 파국으로 질주하게 되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것이다.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복원》과 《동맹강화》를 운운하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린 리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끊임없이 악화되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는다.

지금도 북남관계는 동족과 동지이고 외세와의 입을 맞추는 윤석열패당에 의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윤석열패

당의 범죄적인 외세와의 《공조》놀음으로 북남관계가 가담게 될 종착점은 파국의 낭떠러지밖에 없다.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한사코 매달리는 외세와의 《공조》는 민족의 머리에 해재양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공조》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이 땅에서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킬 파국적인 후과를 내포하고있다.

남조선 집권세력이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해나서는것은 북남사이의 긴장격화와 조선반도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윤석열패당은 외세와 뒤꽂방에 마주앉아 그 누구를 시비상상하고만 있는것이 아니다. 군사적협으로 어떻게 하면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제도를 전복시키겠다는 하는 공공이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윤석열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기 바쁘게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확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등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초대형핵함포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쏟아붓고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들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사대와 외세굴종, 동족대결이 야말로 보수패당의 고유한 생리이며 긴장격화와 전쟁은 그 필연적 산물이다.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구걸하는 외세와의 《공조》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패국매국적인 《공조》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남조선에 외세에게 더욱더 종속시키고 민족의 리익에도 막대한 해를 끼치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행동에 가담해줄것을 비굴하게 간청하는데 외세가 달라는것은 다 주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고 늑어나는것은 남조선민생이고 짓밟히는것은 민족의 존엄이다.

윤석열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반공화국압박 《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해 예결부결하다나니 탐욕적인 미국은 남조선대기업들이 수백억US\$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강박해나시키고 있다.

바다건너 일본은 또 어떠한가. 동족을 해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일본에 머리를 수그리고 빌붙으니 간특하고 철면피한 일본은 이참에 저들의 과거침략행위를 다 합리화하려 하고 지어 우리 민족의 신성불가침한 령토인 독도까지 제땅이라고 우기며 생트집을 걸고있다.

그러니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것은 굴욕과 수치이고 잃을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다.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것은 비참한 자멸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지 않은적이 없지만 그 범죄적목적을 실현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오려려 남잡으려다가 제스스로

파멸의 구렁렁에 빠지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군 하였다.

지난 시기에도 그리하였지만 지금 공화국은 대비할수 없게 힘이 강해진 나라이다.

공화국의 손에는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이 쥐여져있으며 누가 뭐라고 해도, 가로막아보려고 해도 그 군사적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비약적으로 강화되고있다.

이런 공화국을 외세의 힘을 빌렸자 어쩔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섬나라속속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의 힘을 다 끌어모아 달려든다 해도 공화국의 풀 환포기도 다치지 못할 것이다.

공화국과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자와 패자는 이미 명백히 갈라져있다. 부질없는 압박 《공조》에 매달려보았자 제 힘만 소진할뿐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외세에 추종하면서 동족암살책동에 매달린다면 머지않아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박철남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4)

통일에국어로 인생전환을 한 때부터 최홍희선생은 자주 공화국을 찾았다.

그때마다 커다란 영광이, 행복의 절정이 그를 기다리군 하였다.

1989년 여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참가차로 평양에 온 그는 개막식때에 진행하는 대집단체조에 태권도 종목에 넣었으면 하는 자기의 속생각을 해당 일군들에게 비쳤다. 이에 대해 보고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의 희망대로 대집단체조에 태권도종목을 넣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불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집단체조에 태권도가 선정 준비되였다.

주체78(1989)년 7월 1일,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개막식에 참석하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홍희선생을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대집단체조를 관람하시였다. 이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태권도종목이 출현할 때에 제일 선창으로 박수를 쳐주시였고 축전에 참가한 손님들에게 최홍희선생을 《대권도대장》이라고 소개해주시며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1988년 11월 어느날 공화국에 머물러있던 최홍희선생과 부인이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어느 한 건물의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방에는 풍성하게 차린 생일상이 있었다.

일군은 최홍희선생부부를 손잡아 이끌어 상상에 세워 주며 《최홍희선생의 생일과 아울러 부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진정어린 축하의 말을 하였다.

뜻밖의 일이었다.

최홍희선생부부는 일군으로부터 이얘기를 듣고서야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홍희선생이 그동안 산실고 물결은 이국 땅에서 고국산천을 그리며 적적하게 생일을 쇠였는데 이번엔 평양에 데려다 주게 되니 축하를 해주고, 최홍희선생의 환갑이 올해에 환갑이면 환갑도 겸해 차려주자고 하시면서 최홍희선생과 부인의 생일상을 함께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최홍희선생은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망명객이라는 서글픈 이름의 울타리속에 온갖 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지난날들과 그러한 불운의 세월속에 쓸쓸하게 맞고보내던 생일날들이 떠올랐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수십차례의 생일을 맞고보내면서도 언제 한번 인상에 새겨진 생일상이 떠오르는데도 없었던 망명객. 생일이라고 해도 한두명의 친지와 함께 마주앉아 따뜻한 마음을 터쳐온것이 고작이었다.

그러한 최홍희선생이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과 기대가 담겨진 뜻깊은 생일상을 받아안은것이다.

그로부터 꼭 10년후인 1998년 11월 최홍희선생부부는 또다시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때로 말하면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홍희선생을 잊지 않으시고 조국에 불러 선생과 부인의 생일상을 잘 차려주도록 뜨거운 정을 베풀어주시었던 것이다.

또한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차창기연)의 한장면

반통일매국세력의 대학 본논의 표출

얼마전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발표 22돐을 맞으며 다양한 기념행사들과 집회들이 진행되었다.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은 《정책토론회》, 평화선언식을 열고 《윤정권이 시작한 반통일적이고 미국주종적인 로선과 정책은 위험천만한것》이라고 하면서 《6.15선언

을 존중하고 실천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철회와 북남관계개선, 《한》미합동군사연동 등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매국세력을 철대로 용납치 않려는 확고한 투쟁의지의 발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가장 반세기 이상이나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

에게 있어서 평화만큼 소중한것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패당은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침략적인 외세와 손잡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다.

맹진시기의 유물인 《북주적론》을 되살리고 미국과 함께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을 벌이고있는가 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미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지어 윤석열패당은 《한미일3각동맹》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인 섬나라속들과 입을 맞추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러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결국 북남관계가 더욱 파국에 처하고 전쟁위험이 최대로 고조되고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북의 강대강, 대북투쟁선포는 당국의 대북강경정책이 풀이온 필연적산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패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자들이 갈 곳이란 수치스러운 파멸의 구렁렁이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릴수록 보수집권세력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게 될것이다.

김영호



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고는 해당 일군에게 자신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최홍희선생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다고. 최홍희선생은 생일 80돐을 맞는 오늘까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효모의 마음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편에서 정통적인 우리의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약해오셨다. 하시며 생일 80돐을 맞는 최홍희선생이 아무쪼록 건강장수하기를 바란다는것을 전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명들고 더글라진 가슴속의 마음을 그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었던 망명객. 반생을 미국의 앞잡이로 반공일선에 섰던 자신에게 인간의 참다운 삶을 안겨주시고 그를 원형으로 예술영화까지 창작하도록 한것은 사랑을 안겨주시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최홍희선생은 깨달았다.

민족성원 개개인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에서 결정지어지고 그 민족의 운명은 참된 수령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본사기자

총련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제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민족교육의 만아들학교로 불리우는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가 최근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여기에는 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도교지역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반영되었다.

최근년간 이 학교 운동장은 비가 좀 세게 내리면 절반이상이 물에 잠기곤 하였다. 심지어 작은 구멍이들까지 생겨나군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동포들의 마음은 아팠다.

(민족교육은 애국위업의 생명선이 아닌가. 우리가 학교를 사랑하고

도우라는 운동을 일관하게 벌이고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빈구석이 많은것같다.)

이렇게 생각한 교육부와 어머니회 성원들, 학부모들과 졸업생들은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일신시킬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웠다.

자극확보가 제일 큰 문제에서 실행위원회성원들은 초기에 물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공언한 우려였다. 동포들이 너도나도 자기의 성의를 바치었던것이다.

니시도포지역에서 사는 한 동포녀성이 선창으로 학교에 찾아왔다. 총련일군으로 사업하다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뜻이라고 하면

본사기자



나고야초급학교의 새 교사 입사식이 진행, 새 교사를 돌아보는 학생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삼백 각계층의 투쟁

범죄적인 《3선개헌》을 반대하여

군사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박정희정부는 좌췌독재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범죄적인 《개헌》음모를 꾸미었다.

박정희정부가 1969년 2월 초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3선개헌안》이란것을 공개하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또다시 폭발하였다. 1969년 2월 5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의 학생단체대표들과 여러 청년단체대표들은 선언문을 발표하여 《3선개헌을 또 하나의 쿠데타로 인정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것》을 선포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수백명 학생들이 《3선개헌반대 법과대학학생총회》를 열고 박정희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폭로규탄하면서 전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며 화답하여 서울대

학교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서울의 각 대학들에서 《3선개헌》반대투쟁이 일어났으며 이 투쟁의 불길은 대구, 마산, 광주, 목포, 전주, 대전, 청주, 인천, 수원, 강릉, 제주 등 남조선전역으로 번져갔다.

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전국민의 념원이 일부 소수자의 권력욕에서 희생될수 없다》, 《이제 우리의 민족력사는 다시금 새로운 피의 투쟁을 부른다. 민족의 분열과 민족정신의 파괴를 초래하고있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이의 분쇄를 위한 피의 투쟁은 우리들자신의 숭고한 의무이다》, 《3선개헌 반대한다》, 《3선개헌은 4.19의 모독이다》고 웨치며 군사 좌췌독재자들과 전격히 싸웠다.

반과췌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대중적진출은 정계와 사회 각계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7월 17일 《3선개헌반대법국민주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신민당, 대중당, 통일사회당, 자유당, 《한국독립당》, 자유당 등 6개 야당들과 《정치활동동화법》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재야인사들, 종교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4.19 및 6.3단체 대표들이 망라되었다.

《3선개헌》반대투쟁이 확대강화되는데 절강한 박정희회당은 7월 25일 이른바 《특별대화》라는것을 통하여 《3선개헌안》을 거역시성사시킬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떠들었다. 그후에는 야당원들이 다 잠든 사이에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불과 6분만에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의 골자는 두번이상 연이어 《대통령》을 할수 없게 되어있던 《헌법》의 규제조항을 세번까지 할수 있게 뜯어고친것이었다. 이것은 1971년 선거

에서 세번째로 《대통령》갑투를 올려쓰며 나아가서 영구집권을 하려는 박정희정권의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냈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3선개헌》반대투쟁은 8월 20일부터 더욱 거세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박정희는 리승만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헌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독재정치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애국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곳곳에서 박정희정권의 허수아비를 불태워버리고 모의재판을 벌리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을 벌리었다.

남조선 각계층의 《3선개헌》반대투쟁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주의파소통치에 대한 썩고썩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서 박정희회당의 장기집권책동과 외세의 식민주의파소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김명남